

● 論 說 ●

編 修 有 感



宋 吉 永
(本學會 編修委員長)

筆者是 지난 1985年 1日부터 1986年 12月까지 滿 2年間に 걸쳐 本學會의 編修委員長職을 맡아 오면서 큰 大過없이 學會誌 및 論文誌의 編修, 發刊을 무사히 끝내고 任期를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李德出, 吳明煥 兩編修理事(副委員長)의 적극적인 協助와 함께 애써주신 編修委員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였음을 이자리에서 밝히고, 또한 폭주되는 業務를 효율적으로 處理해 준 事務局 姜秉玉課長의 功이 컸음을 밝히면서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學會가 벌이는 事業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또는 會員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學會誌 및 論文誌의 發刊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질없이 學會誌 24권, 論文誌 24권을 發刊하게 되었으나 다만 兩誌 共히 量과 質的인 면에서 많은 發展을 거듭해서 이제는 國內外的으로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水準에 이르렀다고 自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學會의 發展을 擘劃하는 會員여러분의 끊임없는 努力과 아낌없는 聲援에 의한 成果라고 믿어 우선 編修委員會를 代表해서 會員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慣例에 따라 在任期間中の 編修業務의 概要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編修관계 업무는 學會誌와 論文誌의 編修로 집약됩니다.

현재 우리 學會는 會員數가 5,000명에 달하는 國內 굴지의 大學會로서 다른 學會와는 달리 每月 學會誌와 論文誌를 각 1권씩 분리, 發刊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會誌(論文誌 포함) 發刊에 주력하고 있는 優秀한 學會로서 높이 評價되고 있습니다.

이중 會誌에 있어서는 모든 會員이 關心을 갖는 새로운 技術情報 및 國內外 動向을 소개하는데 重點을 두고 編修에 임했으며(表1참조) 學會誌編輯도 表2에 보인것처럼 다양한 分野를 커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와서 들

表 1. 技術 關係 記事

	1985	1986
技術解說	17	10
技術展望	6	9
技術動向	8	10
技術講座	3	2
講演	6	5
論說	4	1
技術報告	1	-
계	45	37

表 2. 特輯

85年度	86年度
3月: 電力電子(8편)	3月: 通信 및 情報(8편)
6月: 新 電氣電子材料(8편)	6月: 電子計算機(8편)
9月: 醫用生體工學(8편)	9月: 電氣機器(11편)
11月: 放電 및 高電壓(8편)	11月: 電力系統(8편)

이켜 보니 앞서 筆者가 約束했던 대로 과거의 受動的인 편수체제를 벗어나 보다 많은 會員들이 自發的으로 참여하고 적극 협조할 수 있는 能動的인 편수체제를 이룩하여 보겠다는 公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될 큰 宿題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會員 여러분들의 바람과 요청(Need)에 부응할 수 있는 편수의 개편,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情報수집과 제공의 활성화, 그리고 피이드백 기능을 살린 會員여러분의 評價시스템에 입각한 改善案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特輯편집에 있어서도 每 3개월에 1分野씩 선정한다는 것은 그나마도 다양해지고 급속히 진전되는 技術情報를 제때에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또한 會誌가 特輯一色으로 짝어지다 보니 그 分野에 관심이 많은 會員以外에게는 外面당하는 폐해가 적지 않다는 비평도 있고해서 앞으로는 격월 내지 수시로 시대에 맞는 토픽을

表 3. 論文誌 現況

1. 接受	
1) 84년에서 이월	29편
2) 85년도 接受	84편
3) 86년도 接受	132편
計	245편
2. 掲載	
1) 85년도 掲載	60편
2) 86년도 掲載	72편
計	132편
3. 87년으로 이월분	71편

小特輯으로 편수한다는 개선안을 세우고 내년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論文誌에 관해서는 우선 量的으로는 表 3에 보는 바와 같이 근년 提出편수가 폭주해서 86년도 下半期부터는 종래의 월 5편 掲載를 월 7편으로 늘렸습니다만 그래도 70여편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어 喜悲가 엇갈린 심정입니다. 다행히 새해부터는 會員 여러분의 協助(掲載料 증수)를 얻어 月間掲載편수의 上限이 없어질 것임으로 量的擴充을 통한 論文誌의 活性化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質的인 면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가 남아 있긴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質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論文誌야말로 우리 學會의 質的水準이라 할까 能力을 나타내는 얼굴겨인 것인데 이것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學會가 발전하고 會員의 水準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 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폭주하는 제출논문편수, 점점 細分化되고 專門化되는 研究分野, 學際的인 研究對象 등에 即應하기에는 현 체제만으로는 벽찬 실정이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도 다행히 86년도 하반기부터 事務要員의 增員을 보았고 學會內 컴퓨터의 導入으로 論文審査委嘱委員의 大幅的인 增員作業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그동안 노출된 몇 가지 制度的인 개선과 아울러 새해부터는 一新된 體制下에서 효율적인 編修業務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以上으로 85, 86年度 在任中 編修業務를 回顧하였는데 막상 이루어 놓은 일보다도 매듭짓지 못한 채 숙제로 넘겨주는 일을 더 많이 남긴 채 職을 사임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後任 編修陣의 새로운 活動을 기대하며 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빕니다. 感謝합니다.